

金東仁 小說의 通俗性 考察

— <水平線 너머로>를 중심으로 —

尹 政 憲*

〈차 례〉

- | | |
|---------------------------|-----------------|
| 1. 序 論 | 2) 興味本位の 事件展開 |
| 2. <水平線 너머로>에 나타난 通俗性的 實體 | 3) 消極的 現實意識의 反映 |
| 1) 人物設定의 硬直性 | 3. 結 論 |

1. 序論

琴童 金東仁은 우리 근대소설의 한 시대를 왕성한 실험정신으로 누빈 藝人이다. 그의 소설은 초창기 春園의 功利主義 文學觀에 반발한 各種 純文藝志向의 短篇小說에서부터 후기의 新聞連載 長篇小說 및 野談類 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신사조 속에 광범한 획을 그으면서 우리 소설사의 한 軸을 형성하고 있다.

1919년 <創造>發刊을 계기로 反功利主義의 旗幟 아래, 다양한 선진문예사조를 작품 속에 수용하면서 초창기 우리문단의 대표적 단편작가로 文名을 날리던 東仁은 1929년 동아일보에 그 최초의 장편소설인 <젊은 그들>을 연재하게 된다. 이후 그는 1948년의 未完長篇 <을지문덕>에 이르기까지 모두 10편의 장편소설을 집필하게 되는데 이는 대부분 新聞連

* 慶北産業大學敎 敎授

載小說이었다.

이것은 애초에 신문소설을 지급한 통속소설로 취급하여 백안시해 왔던 東仁의 文藝觀에 비추어 볼 때 대단히 주목할만한 큰 사건이었다.

그때 [동아일보]에 〈許生傳〉,〈一說春香傳〉,〈再生〉 등을 쓴 것이 춘원 자신의 뜻이었는지 혹은 동아일보 사장 古下 宋鎮禹의 뜻을 받음이었는지는 따져 보지 못하였지만, 이 사실 때문에 바야흐로 싹트려던 조선 신문학이 받은 바의 타격은 막대하다.

이 책임을 오직 春園에게 뒤집어씌우는 내가 오히려 비겁하다. 破産 失妻 등 쓰라린 사고에 부딪쳐서 붓을 던지고 숨어 있던 내가 다시 붓을 잡은 것은 [동아일보] 지상의 〈젊은 그들〉이었다. 아직껏 청초하고 고결함을 자랑하던 나였었지만 몇 푼의 원고료를 받아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때껏 거절해 오던 [동아일보] 집필을 종내 수락한 것이었다.¹⁾

生活苦 때문에 그토록 主唱하고 熱望해 왔던 순문학의 등지를 박차고 대중통속문학의 산실인 新聞에 발들여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東仁의 이같은 回顧는 다분히 자기중심적 변명이어서 이를 그대로 수긍할 순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代表的 文人의 變身論理의 一端을 잘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통속소설에서는 우리는 卑하고 劣하고 汚하고 추한 것밖에는 아무 것도 發見치를 못하오. 거기는 獨創의閃이 없오. 思想의 烽이 없오. 사랑의 芽(芽)이 없오. 아무것도 없오. 讀者를 끄으려는 卑劣한 아침의 思想이 있을 뿐이오. ----- 이러한 低級小說을 보아서 有益이 없소. 우리는 小說에 對한 誤解의 思想을 고치고 ----- 卽 極幼稚한 通俗小說에 健全한 文學的 小說로 代하고, 小說과 墮落을 聯想하는 思想에 小說과 文化를 聯想하는 思想으로 代하여 우리 社會를 純藝術化한 社會로 만듭시다.²⁾

1) 김동인, 문단30년의 자취, 〈신천지〉(1949.2).

2) 김동인, 소설에 대한 조선사람의 사상, 〈학지광〉v.18(1919).

이처럼 철저히 純文學을 追從하며 通俗小說의 害毒性을 강조하던 그가 文學의 大衆性에 깊이 傾倒되어 다음과 같이 "亡羊嘆"을 부르짖게 된 데엔 개인적 신변사를 뛰어넘는 문학적 각성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상정된다.

대중의 支持가 없을지라도 문학은 존재할 수와 가치는 있다. 그러나 대중이 없이 존재한 문학은 마치 심산의 보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相對的 價値가 없는 바이다. 그러면 조선의 文學徒는 어떤 길을 취해야 하나?

文學道 자체의 가치는 바 亡羊嘆과 아울러 文學建設 方途의 亡羊嘆까지 가진 조선의 文士된자의 입장은 진실로 괴롭다.

亡羊嘆! 亡羊嘆! 우리의 많은 양은 장차 어디서 찾아내일까?³⁾

즉, 초창기 그 자신이 象牙塔이라 일컫던 문학의 正道(純粹文學에의 길) 외에, 독자대중과의 交感을 앞세우는 보다 절실한 文學道가 있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었던 동인의 문학관 변모는 결국 讀者社會學的 認識의 擴大와 관련된 것으로 그 시사하는 바가 남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저간의 상황 속에서 독자대중을 염두에 둔 "읽히는 문학"을 추구한 동인의 新聞連載長篇小說들은 독자와의 交感手段으로서의 通俗性을 상당부분 작품 속에 수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우선 正史의 餘白을 虛構的으로 再構成해 通俗性을 가미한 歷史小說들을 선보이게 되는데, 이들은 거개가 역사상의 일반적 평가를 뒤집고 있거나 필요에 의해 인물을 영웅화하고 있어 독자대중을 牽引하려는 작가의 역력한 고심의 흔적을 엿보게 한다.

高句麗正統論의 基調 아래 大衆의 歷史的 興味를 색다른 시각에서 誘導하는 <서라벌>과 <울지문덕>, 역사상의 지명도 높은 인물을 비범한 영웅

3) 김동인, 망양탄(1935), <김동인전집>v.10(홍자출판사, 1964), p.265.

으로 각색해 독자대중의 향수를 부추기는 〈대수양〉과 〈전환〉, 그리고 〈운현궁의 봄〉, 역사의 저변을 센치멘탈하게 훑어내는 〈젊은 그들〉과 〈해는 지평선에〉, 그리고 〈백마강〉 등 그의 장편역사소설들은 하나같이 正史를 대중적 시각에서 재해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리하여 역사의 세속화 내지 통속화로 빠져 들어 작품전개의 가닥을 잡아가게 되는데, 이 중 東仁의 유일한 非歷史長篇小說인 〈수평선 너머로〉엔 이러한 통속적 경향이 더욱 현저해 지고 있다.

통속성이란 것은 두말없이 상식성이다. 상식성이 소지하는 수량적 의미와 논리적 의미의 것을 통속성 역시 갖는 것이다. 통속성이 당해 사회와 시대에 있어서 누구나 모두 안다고 하는 많은 수량과 그것은 으레 그럴 것이 아니냐 하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상식의 경우와 꼭 마찬가지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속성이란 곧 사회성이다. 대중이라는 다수와 통하는 바닥이다.⁴⁾

이처럼 통속성의 의미를 "상식성, 사회성, 대중성"으로 규정할 때, 〈수평선 너머로〉만큼 통속성의 본질적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도 드물 것이다. 그것은 역사소설과는 달리 이미 정해진 줄거리(歷史上의 史料範圍)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틀 속에서 작가가 마음껏 대중의 기호와 흥미에 영합할 수 있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이와 함께 김남천{“장편소설계”,〈조선문예연감〉(인문사, 1939)}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 장편소설이 갖고 있는 모순, 분열, 파괴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초극할 방향에서 노력치 아니하고 출판기관의 상업주의에 영합하여 그대로 안이한 해결방법으로 몸을 던진 것, 그리하여 흥미본위, 우연과 감상의 남용, 구성의 기상천외, 묘사의 불성실, 인물설정의 유형화 등등으로 가버린 것”이란 통속성의 구체적 개념에 〈수평선 너머로〉가 상당히 근

4) 안희남, 통속소설의 이론적 검토, 〈문장〉(1940.11).

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金東仁 通俗小說의 典範的 位置에 놓이는 것으로 想定하게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평선 너머로〉에 나타난 통속성의 실체를 포착해 봄으로써 김동인 소설이 보여주는 轉換期 實際創作의 한 軌跡을 糾明해 보고자 한다.⁵⁾

2. 〈水平線 너머로〉에 나타난 通俗性의 實體

1) 人物設定의 硬直性

〈수평선 너머로〉(매일신보, 1934. 7.10 ~ 12.19)는 日帝下 한 隱退官僚의 巨額債券을 노리는 國際犯罪集團과 民族主義秘密結社 사이의 숨막히는 激突과, 이를 추적하는 日警 高等係 刑事의 행적을 다루고 있는 추리 탐정소설이다.

세계적 범죄과학자이며 상해에 본부를 둔 민족주의 비밀결사의 간부인 서인준은 윤백작의 집에 숨겨진 거액의 국제공채를 그들의 사업자금으로 쓰도록 빼돌리기 위해 경성에 잠입한다. 그러나 그 공채를 노리는 국제적 범죄조직 "LC당"이 이미 한 발 앞서 행동에 착수했을 뿐 아니라, 귀국 도중 우연히 알게 된 일경 고등계의 민완 엘리트형사 이필호의 감시까지 받게 됨에 따라 그의 목적달성 여부는 불투명해진다. 이 와중에 윤백작에 의해 生父를 잃은 LC당원 김소춘이 개인적 원한풀이와 소속단체의 목적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 이 거사에 투입되었음이 밝혀진다. 경쟁집단인 LC당으로부터 채권도 보호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살인도 막기 위해 서인준은 이필호와의 同床異夢의 共助 아래 LC당에 대처한다. 때 마침 인준을 흠모하는 LC당의 고급간부 미스 영의 도움으로 여러 번의 암살 위기를 모면한 인준은 자신도 미스 영에 대한 남다른 연정을 품고 있었음을

5) 본고의 대본으로는 김동인전집v.4(삼중당, 1976)을 활용하기로 한다.

확인하게 되고, 사랑에 매료된 미스 영은 자신의 소속계파를 초월해 인준을 돕게 된다. 마침내 김소춘을 설득해 목표거점인 윤백작저택으로부터 LC당의 마수를 차단하는데 성공한 인준은 집요하게 추적하는 이필호의 감시를 따돌리고 미스 영의 도움으로 공채 절취의 목적을 달성한다. 아울러 그가 의도했던 바처럼 윤백작의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경찰을 신분 활용해 LC당도 일망 타진한다. 그러나 자신은 공채를 갖고 상해로 날아간 미스 영과 합류하지 못하고 이필호에게 검거되고 말지만 범법(채권 절취)에 대한 물적 증거가 없어 석방될 것을 확신하며 득의만만해 한다.

이상의 줄거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인물의 설정이 지극히 도식적이어서, 비범한 인물을 중심으로 초인적 애깃거리를 제공하는 고소설을 연상시킨다.

먼저 주인공 서인준의 경우를 보자.

인준이는 외투 주머니 속에 넣은 자기의 주먹을 몇 번 힘있게 쥐었다. 표면 어느 모로 뜯어 보아도 한개 온공한 학자 이상으로는 볼 수 없는 인준이로되, 그의 표랑 생활이 낳은 바의 다분의 열기심과 모험심과, 그의 교양이 낳은 바의 범죄 과학에 관한 연구심 때문에, 표면과 달라 투심이 만만한 인준이의 마음은, 장차 전개될 맹렬한 쟁투 때문에 뛰놀았다.⁶⁾

이처럼 서인준의 퍼스넬리티(Personality)를 소설의 전체 열개 속에서 묘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나타내지 않고 작가의 주관적 서술로 주입시키려 함에 따라 작중인물 서인준은 소설내적 형상화를 통해 존재하지 못하고 신화적 인물로 독자에게 다가서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인준의 인물 설정은 통속소설의 전형적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통속소설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를 제공하여 독자에게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충동력을 제공하기보다는 현실에서 받은 압력을 배제시키

6) 대본, p.23.

고 오락적 수단을 통해 독자의 기분을 전환시켜 다시금 사회적 상태에 순응케 하려는 오락과 긴장해소의 문학이라면⁷⁾ 이러한 독자대중의 기호에 쉽게 영합할 수 있는 卓越한 해결사로서의 서인준의 인물설정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서인준은 범죄과학자로서의 자신의 뛰어난 叡智와 鑑識眼을 십분 활용하여 오히려 경찰의 수사를 조종하는가 하면, 지성적이며 수려한 용모와 세련된 매너로 LC당의 핵심인물인 미스 영을 사랑의 포로로 만들어 손쉽게 목표를 달성케 되는 것이다.

"선생님의 명이사라면-----"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말이었다. ----- 중 략-----

"만약 미스 영의 마음이 자유시라면 그-----"

뒤를 말하지 못하였다. 머뭇거렸다. 그러나 이 순간 미스 영의 얼굴은 주홍빛이 되었다.

알아들은 것이었다. ----- 중 략 -----

"〈미세스 서〉가 되어 주십시오!"

드디어 나온 이 말 ----- 미스 영은 주홍빛이 된 제 얼굴을 탁 무릎에 묻어 버렸다.⁸⁾

우리는 여기서 한 善男善女의 浪漫的 遭遇를 접하게 된다. 그것은 미스 영이란 인물, 또한 서인준 못지 않은 미모와 수완을 겸비한 才女로 適材適所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미스 영의 이같은 理想的 面貌는 작가의 주입적 서술에 의해 독자들에게 강요되고 있다.

7) 즉, 통속소설은 사회의 지배적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상황을 존속시키는 행동방식과 가치규범이 순응하는 대개 도시 소시민의 오락과 긴장해소 그리고 위안과 도피의 성격이 강한 문학이며, 도시적 소시민 다수 대중을 독자층으로 상정하는 근대문학의 저층을 광범하게 형성하던 소설형태라는 것이다.; 김강호, 1930년대 한국 통속소설 연구(부산대 대학원, 1994.6) p.22.

8) 대본, p.133.

-----인준이는 비로소 자기와 춤을 추는 여인을 굽어보았다. -----인준이에게 던진 몇 마디의 말은 중국어가 아니었다. -----상해에서는 그다지 널리 사용되지 않는 독일어 ----- 그것도 독일서 중학을 졸업한 인준이로서도 일점도 나무랄 데가 없는 순전한 독일어였다.-----

이 너무도 유창한 독일어와 화려한 댄스에 인준이는 비로소 미스 영이라는 여인을 인식한 것이었다.⁹⁾

화학 교실에서였다. 인준이는 강단 위에 서서 지금 열심으로 교수를 하고 있는 어떤 여교수의 위에 눈을 딱 멈추었다. 미스 영이었다.

반년 전에 상해 어느 댄스 홀의 댄서로 있던 여인이 구르고 굴러서 오늘날 어떻게 이 대학의 화학교실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것이었다.¹⁰⁾

그러나 거기서 인준이로 하여금 경악케 한 것은 막간(幕間)에 나와서 독창을 하는 가수였다. ----- 무론 그렇다고 단정은 할 수가 없지만, 그 음성, 그 태도, 그 스타일에서 인준이는 그 가수를 미스 영이라 보았다. -----중략----- 〈카르멘〉의 〈하바네라〉의 한 곡조를 전문적 오페라 배우에 못지않을이만치 교묘히 부르고 막 뒤로 사라지는 그 여인의 위에 경악의 눈을 잠시 던지고 있던 인준이는 -----¹¹⁾

이처럼 자유자재로 자신의 직분(댄서, 교수, 가수)을 완벽하게 둔갑시킬 수 있는 미스 영의 초인적 능력은 중국에 그녀의 신분이 수령 매킨지 대좌의 절대적 후원을 받는 LC당의 제2인자임이 드러나 또 한 번의 경악을 안겨 주기까지 끊임없이 독자들을 사로잡는다.

그러나 이같이 완벽한 여인도 서인준 앞에선 사랑의 포로가 되어 맥없이 무너지게 함으로써 서인준의 절대적 이미지를 한층 강화하고, 이상적 인물 간의 환상적 결합을 유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현실을 일탈한

9) 대본, p.25

10) 대본, p.26

11) 대본, p.27.

낭만적 허구 속에 침잠케 한다. 즉 상정 가능한 현실세계의 모든 골치 아픈 문제로부터 벗어나 전지전능한 구원자상의 주인공에게 독자 자신의 실루엣을 同一視 投射시킴으로써 자기위안의 정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²⁾ 1920~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 시절, "상류사회"를 제재로 한 당시 대부분의 영화의 단골관객은 거의가 비참한 생활을 영위 하던 일용직 근로자나 실업자들이었다는 사실은 이를 웅변으로 증명해주는 셈이다.

이처럼 讀者牽引의 視覺에서 볼 때, 통속소설의 주인공이 가지는 절대적 이미지로서의 경직된 인물설정은 상당히 중요한 예술적이고도 기법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악의 무리에 맞서 순조롭게 목적을 달성하는 명탐정 서인준, 그의 이상적 파트너로서의 매력적인 미스 영, 이에 맞서는 당대로선 보기 드문 동경제대출신의 엘리트형사 이필호¹³⁾ 등이 통속소설의 전형적 인물군을 형성하면서 현실과 유리된 환상적 분위기를 엮어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는 복수의 화신 김소춘과 젊은 시절 고관의 횡포를 자행하고 후환에 떠는 윤백작, 그리고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정한 집단인 LC당의 무리 등이 이들의 맞은 편에서 대응축을 형성하면서 흥미로운 긴장구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하여 명백히 매력적이며 긍정적으로 설정된 인물과 명백히 혐오스럽고 부정적으로 설정된 인물간의 명료한 대결 속에서 독자들의 기대치와

12) 통속소설의 위안 도파적 기능은 필요불가결한 생활적 요건들로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새롭지 하며 약화된 활동력을 자극하고 강화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불안을 진정시키고 삶 속에서 부딪치는 그통스러운 문제들을 피하게 해 주며 소극적인 자세와 자기도취 지향적 속성을 지니기도 함으로써 심리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중요한 봉사의 기능을 담당한다. ; 김강호, op.cit, p.21.

13) 이필호에 대한 서술을 본문 중에서 발췌해 본다.; '형사 중에 가장 수완있는 한 사람인 모양입니다. 학벌도 동경제대 출신이니만치 당당하고, 정통으로 공부를 한 인텔리이니만치 다른 형사들과 같이 구식한 일이 적고, 멋없이 건방지게 굴지 않고 무슨 일이든 담당해 되면 차근차근히 끝까지 캐어 들어가고, 그러니깐 상부의 신임도 좋은 모양입니다. 사람이 상냥하고 교제가 있고 하니깐 동료들 사이의 인기도 또 괜찮은 모양이고.....' :대본,p.38.

작가의 의도가 절묘하게 결합된 이상적인 대단원을 맞이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을 환락과 위안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2) 興味本位の 事件展開

이 작품은 千二斗의 지적¹⁴⁾처럼 철저히 사건중심의 추리소설이다. 윤백작 저택에 은닉된 거액의 국제공채를 절취하려는 서인준 중심의 민족주의 비밀결사와 세계적 명성의 국제범죄집단 LC 당 사이의 숨막히는 대결에 이를 뒤쫓는 민완형사 이필호의 집념이 어우러져 작품의 전체적 골격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핵심사건을 중심으로 여러 결가지들이 부수되어지는데, 그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몸은 LC당의 간부이면서 마음은 인준에게 향해 있는 미스 영과 서인준 사이의 로맨스라 하겠다. 여기에 윤백작의 과거행적에서 비롯된 김소춘의 원한과, 김소춘과 윤찬두 두 아들 사이에서 고뇌하는 노마님의 베일에 싸인 과거사, 그리고 서인준을 위해하려는 김소춘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스영의 각축, 윤백작 저택에 위장잠입한 서인준 누나의 암약상 등이 겹들여져 통속소설로서의 재미를 더 해 주고 있다.

여기서 서인준이 LC당의 접선을 추적하는 장면을 보자.

"이게 뭐냐?"

변화한 종로 거리에서 북쪽으로 꺾어져 들어가는 어떤 세 길 어름 앞이었다.

절기로는 봄이라 하되 아직도 겨울 기분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도 가벼운 봄양복으로 몸을 장식한 젊은이가 머리를 기울이며 무엇을 들여다 보고 있었다.

----- 1140477 ----- No. 3 ----- 진열장과 진열장 사이에 약 한 자 가량 있는 양회 담벽에 누런 토필로 이런 숫자가 씌어 있었다. ----- 중 략 -----

14) 천이두, 작품해설, 대본, p.553.

북쪽으로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 자기의 발걸음의 간격을 조절하여 가면서 꼭 백걸음을 갔다. -----

거기는 어떤 작다란 구둣방 진열장 아래 역시 누런 토필로써, --- 1140477 ----- No. 4 ----- 라고 써어 있는 것이 있었다. ----- 이제 백 걸음을 더 가면 넘버 5가 있을 것이었다. 그 다음에는 6, 그 다음에 7 ----- 이리하여 제 7에는 ----- 젊은이는 그 7이 있는 곳까지 가보려고 다시 걸음을 조절하면서 앞으로 걷기 시작하였다.¹⁵⁾

토필로 쓴 숫자 암호를 통해 生面不知의 조직원과 기상천외의 접선을 시도하고 있는 LC당의 點組織戰略은 30년대란 당대 시대상으로 보아 과히 파격적인 설정이다.

독자들은 이처럼 신선한 자극과 기묘한 소설내적 장치에 빠져 현실적 진정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작품의 향후 추이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된다. 일찌기 우르스 예기가 〈통속적인 것〉이란 글(Urs Jaeggi, Literatur und Politik, Suhrkamp Verlag, 1972)에서 통속소설의 특징을 열거하는 가운데¹⁶⁾ "구성의 공식성"과 "세계형상과 사회현상에 대한 허위보고"를 지적한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과거부터 길들여진 체험이 독자의 내부에 형성해 놓은 기대지평으로 인해 새로 접하는 작품에서도 쉽고 편안한 체험을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동시에,¹⁷⁾ 이러한 공식성을 기본틀로 하여 독자들이 예전에 미처 경험치 못했던 새로운 정보의 촛점이나 허위적 사실을 構築해 냄으로써 그들의 시선을 何時라도 작품 속에 묶어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⁸⁾

따라서 〈수평선 너머로〉에서도 프로타고니스트(protagonist) 서인준을 중심으로 수렴되는 모든 대결구도를 여러가지 신선하고 흥미로운 설정을

15) 대본, pp.17~18.

16) 조남현, 〈소설원론〉(고려원, 1982), p.318.

17) 오미남, 1930년대 후반기 통속소설 연구(중앙대 대학원, 1994.12), p.23.

통해 제시함으로써 팽팽한 긴장을 조성한 뒤,¹⁹⁾ 중국엔 주인공 위주의 나레이션(narration)에서 예견된 바처럼 선택의 여지없는 서인준의 완승을 도출해냄으로써 작품의 통속성을 분명히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3) 消極的 現實認識의 反映

이 작품의 주인공 서인준은 소위 민족주의 비밀결사의 지도급 간부이다. 그가 상해에 거점을 둔 이 단체의 본부로부터 경성에 잠입한 것은 윤백작의 거액 공채 때문이었고 이것이 필요했던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그들 소속단체의 활동자금, 즉 軍資金으로서의 용도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견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작품으로선 보기 드문 題材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족주의 단체를 作品의 取材對象으로 삼은 것부터가 파격적인데, 내로라하는 국제적 범죄조직은 물론 當代 植民地의 司正當局인 총독부 고등계 형사까지 마음껏 유린하며 대결에서 승리한다는 구상이 꺾이나 이채로운 것이다.²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상의 단순한 취재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오히려 작품의 긴장구도 조성을 위한 한 방편에 불과한 느낌이다. 즉 국제적 범죄조직과 총독부 고등계 형사와의 인위적 삼각구도 형성을 위해, 이와 적합한 대척관계에 놓일 수 있는 모종의 추상적 민족

18) “공식문학이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그 전체에 있어서는 개별작품의 독특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행릿의 역할에 있어서 같은 희곡을 대본으로 하더라도 그 배우의 개성에 따라 그 공연은 천차만별이며, 재즈에서의 주체의 변형과 같은 것이다.” ; J.G.Cawelti, 〈Adventure, Mystery, and Romance〉 (University of Chicago, 1976), p.10.

19) 김소준으로부터 서인준에게 가해지는 암살의 위협과, 생명을 무릅쓰고 인준을 도와주다 발각돼 위기에 물리는 미스 영의 곤경, 그리고 그 상태에서 미스 영을 구하러 돌연히 출현한 서인준에 의한 반전 등이 그대로 한 편의 서스펜스 드라마를 방불케 한다.

20) “... 민족주의적인 분위기를 은연중 부각시키고 있는 점이다. ... 앞뒤에서 밀어닥치는 여러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소속해 있는 민족주의단체의 사업계획을 결국 성공리에 끝마친다. 작품의 이러한 결말은 은연중 민족주의의 승리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 천어두, op.cit, p.553.

주의 단체를 “짜맞추기” 차원에서 설정한 것 이상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서인준의 소속단체가 민족주의계열이라고만 밝히고 있을 뿐, 이 단체의 구체적 연혁이나 정신적 강령에 대해선 상세한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서인준을 위시한 이 단체 조직원 어느 누구도 민족주의적 역사관에 입각한 철학을 현시해 보이거나 그에 따른 일관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오직 공채를 차지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와, 주인공의 휴머니티를 부각,미화시키기 위해 암살객 김소춘으로부터 윤백작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을 뿐이다.

윤백작택에 감추어 있는 거대한 재물이 원 목적이고, 김소춘이의 복수는 한개의 부수단에 지나지 못하는지, 혹은 복수가 원 목적인지 이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당원이 바야흐로 올리려는 피제사뿐 아니라 방자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조선 사람이라는 의미보다 인류(人類)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인류 사회에 이제 생기려는 비도덕적 복수 사건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²¹⁾

이것은 결국 이 작품이 인물의 영웅화를 통해 의례적으로 권선징악적 도덕률을 강조하는 고소설의 亞流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片鱗이다. 즉 민족주의 이념에 기초한 날카로운 현실인식 ----- 이를테면 민족주의 결사인 서인준의 무리와 총독부 고등계 이필호와의 대결을 보다 심각한 이념적 갈등의 차원에서 다룬다든지, 혹은 백작이 되기까지의 윤백작의 친일행각을 부각시키면서 민족주체성의 차원에서 공채절취의 정당성과 의의를 고양시킨다든지 하는 ----- 을 보여준다기 보다는 현실문제를 되도록 먼 거리에 두고 우회시키면서 그 여백에 현실의 진정성을 호도, 교란

21) 대본, p.69.

하는 감상적 명분이나 통속적 흥미거리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²²⁾

이처럼 소극적 현실인식을 노정시키게 된 것은 이 작품이 작가의 세계관에 중점을 둔 리얼리즘의 소설이 아니라, 독자의 日日反應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신문연재소설인데서 초래된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보인다.

따라서 복잡하고 정치한 현실문제를 정면돌파하기 보다는 이를 기술적으로 희석시켜 독자의 신경을 되도록 현실과 차단시킴으로써 통속적 구도의 면모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3. 結論

본고에서는 김동인 소설이 순수예술지향의 본격소설에서 통속소설로 나아가는 도정을 탐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의 비역사장편소설인 〈수평선 너머로〉에 나타난 통속성의 실체를 살펴 보았다.

日帝下를 배경으로, 민족주의 비밀결사와 국제적 범죄조직간의 공채 쟁탈전을 個人的 私冤과 남녀간의 로맨스에 실어 흥미진진하게 엮어 나가고 있는 이 작품은 동인의 특허상표와 같은 주관적 서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작가의 기획한 의도대로 독자를 위안과 오락의 세계로 끌어들이는데 주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의 논의를 요약해 결론으로 대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인공 서인준을 위시한 미스 영, 이필호 등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평균적 인물을 상회하는 초인적 면모를 보여주는 자들로, 작품내적 형상화를 통해 독자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서지 않고 작가의 주

22) 물론 이 소설이 30년대 중반 이후의 작품으로, 일제의 검열이 극심했던 시절의 어려움을 고려치 않는 바는 아니지만, 일제의 주구인 총독부 고등계 형사(이필호)에 대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서술, IC당 같은 가공집단의 취재로 인한 현실감 결여, 미스 영의 서인준에 대한 우조전적인 연정 등 지극히 현실문제를 도외시한 접근을 보여 줌으로써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관적 서술에 의한 경직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서인준을 중심으로 수렴되는 모든 대결구도를 갖가지 신선하고 흥미로운 설정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팽팽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그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현실적 진정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작품 속에 빨려들게 한다.

셋째, 이 작품은 일견 민족주의자와 고등계 형사를 등장시킴으로써 현실문제 진단의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신문연재소설로서의 한계를 극복치 못하고 단순한 취재의 차원에 머물게 됨으로써 민족주의 이념에 입각한 현실인식을 발현하는 데까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문제를 기술적으로 희석시키면서, 소극적 현실인식에서 기인한 통속적 구도를 펼쳐 보이게 된다.

본고에서 간과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은 후고로 미룬다.